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심미경,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강산, 박 석,  
박춘선, 송경택, 신복자,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황철규 의원(26  
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개선·정비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결손 문제가 심화되고,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신건강(마음건강)과 관련한 지표는 악화되는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인 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두 부처와 조직별로 산재되어 있고, 사안별 대응에 치중되어 있는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체계의 구축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개선·정비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다.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 4. 이송처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 전반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의존이 심화되고, 유해환경 노출에 따라 마약·도박 중독과 같은 사안 발생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결손이 확인되고, 물질적 여건 및 주거 환경의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마음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증진 시책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 청소년 마음건강의 악화는 이미 여러 사회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청소년이 15.2%에서 9.8%로 감소했음에도 청소년 자살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에서도 최근 10년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자해(자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매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등에서도 조사 대상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부처 또는 기관별로 조직과 정책이 산재되어 있고,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관련 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자해 행위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마음건강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응 역량 역시 보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관련 자치법규 체계 역시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약물·도박 중독 등 사안별 대응에 집중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와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서울특별시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인 아이존을 운영하고, 2023년 4월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2021년 「서울형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를 비롯한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시책 전반의 정비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통합적인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 구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3. 5.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